

노년기와 영성: 노인복지 인식전환을 위한 단상

김 미 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요약) 은퇴 이후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감에 따라 정서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노후의 의료혜택이나 건강관리, 요양보호 등의 문제는 노인복지의 주요한 핵심 사업이 되었다. 그렇지만 노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과 인생의 완성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본고는 현대인이 태어나 사회의 요구대로 교육받고 취업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독립시키는 것이 인생의 주요 과업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회복지가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인식전환을 시도해보기 위해 노년기를 중심으로 영성의 문제를 살펴해보았다. 본고에서는 영성과 관련한 인식론적인 문제를 다룬 후 노년기 개인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전까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에서 자아통합을 이루고 완성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복지마인드로의 전환에 대해 숙고해보았다

[Key words: 선도문화, 성공적 노화, 수행, 영성, 자아통합]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8일 한국노년학연구회와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번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미경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mkkim@gwangju.ac.kr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노인복지는 인기절정이다. 가끔 필자는 ‘저렇게 젊은 학생들이 노인문제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그들에게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동기를 묻곤 한다. 중고교 시절 노인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 때문이라는 답을 비롯하여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또는 신앙심 때문이라는 답들도 나온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동기가 되는 부분은 바로 ‘노인복지의 시장성’이다.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초기산업사회 노동자의 노동대상이 생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연에서 추출한 비인격체였다면, 고령화 사회의 이윤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동대상이 바로 노인이라는 인격체가 되어가고 있다. 소위 실버산업이라는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고령화 위기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용근, 2006).

한국사회는 1980년대 중반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절반을 넘었다 (Kim, 2000).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¹⁾ 노인계층이 산업서비스 소비의 주체가 되고, 실버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국민경제학적으로 자연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일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복지가 너무 신체적, 물질적인 현상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소득, 의료, 주거보장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외의 복지서비스는 지역의 복지관들이 위탁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락 배달이나 목욕서비스 등에 주력하는 지역복지관은 양질의 여가나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잔여적 복지시스템 구축에 급급하여 전 국민의 복지혜택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나아가 인생의 발달과업을 마무리하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지지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그

1)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7월 현재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한다 (한국일보, 10월 2일자).

러나 필자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소득, 의료, 주거 및 기타 복지서비스 정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Erikson(1963) 이론에서 노년기 발달 과업인 자아통합 지지라고 본다.

은퇴 이후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노후의 의료혜택이나 건강관리, 요양보호 등의 문제가 노인복지의 주요한 핵심 사업이 되었지만, 노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과 생의 완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많은 연구들이 죽음 준비의 요양 보호를 위한 물리적 케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적 존재로서의 영성 문제에 사회복지적 개입 여지는 크지 않고, 신체, 심리, 사회적 지지를 넘어서 영적 지지의 문제는 종교나 신의 영역이 되고 있다. 혹자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분석한 후 국가복지가 경제, 사회, 심리적 차원의 원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적차원의 도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석돈, 2003), 여기에서도 역시 영적차원의 도움은 종교의 영역이 되고 있다.

본고는 현대인이 성장하면서 사회의 요구대로 교육받고 취업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독립시키는 것이 인생의 주요 과업이며 또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사회복지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년기 중심의 영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영성을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피조물로서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그 결과로 이해하기보다도 (정들순, 2007), 그 자체가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내면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자아완성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 파악하고자 한다.²⁾ 본고에서는 영성과 관련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 후 노년기 개인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전까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에서 자아통합을 이루고 완성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복지마인드로의 전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를 연구한 유동식(1990)은 영성을 감성이나 이성과 구별되는 능력, 하느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영(靈)과 중용 장구에서 말하는 하늘이 명한 바성(性)의 개념이 결합한 것, 즉 인격적인 신령과 우주론적인 성리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노인복지에서 왜 영성을 논하는가?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존적 영성과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영성이라는 두개의 하위개념을 설정했던 최금주와 제석봉(2007)에 의하면,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은 영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 남자보다 여자,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의 영성이 더 높았으며, 영성 중에서도 신과의 관계성(믿음)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현실화되는 실존적 영성이 종교적 영성보다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존적 영성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최금주·제석봉, 2007).³⁾

최금주와 제석봉(2007)은 Westgate(1996)처럼 영성을 ‘자신을 초월하여 개인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체, 정신, 사회·심리적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성이 노년기 안녕에 기여하며 자아통합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전제이외에 영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다. 또 그들이 정의한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실존적 영성은 종교적 영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종교적 영성을 높이고 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자아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영성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이 영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이 영성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성 문제가 종교적 관심의 대상이지 사회학적 연구대상은 되지

3) 이 연구결과는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종교적 영성)보다 종교적 믿음을 타자와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실현하는 실존적 영성이 자아통합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곧 실존적 영성 역시 종교적 믿음을 삶 속에서 현실화하는 종교적 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못하고 있다. 소위 종교사회학이라는 사회학의 한 분과에서도 역시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종교적 문화현상을 다룰 때 영성이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연구보다도 영성의 사회적 기능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원규, 1995; 전명수, 2004). 그러나 고령사회를 맞아 노년기 자아통합을 통한 성공적 노화를 원조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영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가 인간의 생활을 돕는 활동이라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간의 죽음 준비를 돕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덕희 · 이승민, 2007). 최근 호스피스와 요양보험 등 노인복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기 전까지 신체나 심리적으로 보살피는 서비스에 국한되므로 노인의 영성에 대한 지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영성은 어떻게 개발되고 현실화되는가? 사회복지가 노인의 죽음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는 장덕희와 이승민(2007)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주로 죽음을 맞게 되는 노인의 삶의 전 과정에서 가족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생 점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는 노인이 죽음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의 지지요인을 강화하고 가족의 신념체계,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강화에 개입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가족복지적 개입만으로 영성의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본고는 노인들의 자아통합을 통한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노인의 영성을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영성개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직업노동(Erwerbsarbeit)에 의거한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회화 중심은 직업노동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⁴⁾ 이 직업노동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직업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을 상실하거나 구하지

4) 노동사회의 구체적 개념에 대해서는 김미경(2008a)을 참조하기 바람.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따라서 현직에서 물러난 노인은 노동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다. 현대화 이론은 이렇듯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 (Cowgill & Holms, 1972). 자아통합이라는 성공적 노화의 과업을 지닌 노인계층에게 노동시장에서의 직업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을 상실한 노년기 자체가 문제처럼 보이는 사회가 바로 노동사회이다. 이 노동사회에서 노년기는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정책의 대상이 되고, 삶의 지혜를 전수하던 노인들은 사라지고 노동시장을 배회하는 고령화된 산업예비군만 존재한다 (김미경, 2008a). 따라서 물질적 생존의 추구에 전력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영성의 문제는 종교적 행위나 영역으로 구분된다. 문자와 정보통신이라는 기계문명 발전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이 언어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시킨다. 말없이 통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대화는 단절되고 노인까지도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

영적 존재로서 현대인들의 영성 문제는 내가 누구이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실존 문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실존 문제는 종교 영역으로 이원화되고, 사회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매일 일상의 문제에 매달려 실존적인 질문을 회피하거나 잊도록 강요당한다. 영성은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발달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어지는 것, 즉 삶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은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노동시장에 내몰린 노동하는 주체로서 살아온 현대인의 인생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시공간의 개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간의 근원적인 분리를 전제하는 근대적 세계관⁵⁾이 아닌 시공간을 넘어선 모든 존재들 간의 근원적인 통일성을 전제하는 통일체적 세계관 속에서 가능하다 (홍승표, 2005, 2007).⁶⁾ 현대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아통합을 위해 영성에

5) 근대적 세계관은 베버가 분석하는 세속화 과정으로 근대화, 산업화, 과학기술발달과 같은 물질문명의 발전의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 (김성건, 2004).

6) 서구의 사회학을 동양사상과 연결하여 한국적 사회학 정립을 시도한 홍승표(2005)는 부분과 전체를 분리된 독립범주가 아닌 근원적 통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통

대한 이해는 따라서 세계관의 문제, 인식론의 문제와 연결된다.

Westgate(1996)의 “자신을 초월하여 개인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영성의 정의처럼, 영성을 종교적 믿음과 신앙생활로 환원하여 종교행위에 대해 계량적으로 시도하는 연구에 앞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노년기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발달과정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간관계 및 사후문제를 정리하는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노인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식론 문제: 근대적 세계관에서 통일체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홍승표(2007)는 저서 “노인혁명”에서 ‘왜 사는가?’⁷⁾와 같은 궁극적 질문에 대한 이제까지의 대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현재는 새로운 혁명 시대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혁명은 노인혁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인혁명을 깨달음이 깊은 노인이 주체가 되어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노인혁명에 의해 인류의 삶은 노동과 소비의 세계로부터 수행과 낙도의 세계로 혁명적인 전환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매우 흡사한데, 그 이유는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를 위한 영성 개발은 바로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으며, 여기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년기 영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관의 혁명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성개발을 위한 인식론적인 전제, 즉 홍승표(2007)가 언급한 세계관의 혁명인 노인혁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인식의 전환은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찰을 요구한다.⁸⁾ 우리는 자본주의적 경쟁사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일체적 세계관’을 제안했다. 필자는 그의 근대적 세계관과 통일체적 세계관 개념을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7)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아통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연구한 영성 문제에 답하기 위해 ‘왜 사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경쟁으로 이끄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주장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대중매체를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혹사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며, 하루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 성공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 자의 나태과 무능을 경멸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성공한 자의 탐욕과 비리를 비난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남을 가르거나 차이를 강조하고, 호오를 분별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회의 현존하는 많은 불만과 무력감을 새로운 비전으로 승화할 수 있었는지, 필자는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자아통합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영성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현대인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통신혁명이라는 물질문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얻음과 동시에 소외감과 인간성 상실도 경험한다. 17세기 서구에서 출현한 자본주의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된 근대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근원적으로 서로에 대해 분리된 존재로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물질적 편리함을 제공하는 정복대상이 되었고, 사회는 법과 계약에 근거한 관료제에 따라 움직인다. 근대적 세계관의 핵심에는 탈주술화와 과학중심주의를 근거로 한 유럽중심의 제국주의가 존재한다. 유럽중심주의에는 서구(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계몽주의적 발전관과 진보관이 있다. 김성건(2004)에 의하면, 한국 역시 유럽중심의 탈주술화, 즉 세속화를 받아들여 이를 근대화와 동일시하였다.⁹⁾ 이에 따라 토착적 믿음체계는 미신이 되어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박받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의 수용에 따라 현대인들은 소비하는 욕망의 주체로 인식되면서 참된 자아에 대한 억압과 왜곡, 은폐가 일어난다. 또 자연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물질적 지배와 착취 대상이 되면서 환

8) 이에 대해서는 김미경(2005, 2008b)을 참조하기 바람.

9) 김성건(2004)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과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학 중에서도 특히 종교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근대성’과 ‘세속화’를 등치시키는 서구(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출현한 정통적 세속화 이론을 수용하는 서구이론의 식민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년기와 영성

경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 종교는 선악을 가르치고, 인간은 삶의 참의미를 깨닫고 실현하는 깨달음의 주체로서 지혜를 나누기보다 물질을 소유하고, 전승하고, 노동하는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산업사회의 중심가치로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생성되었으며 (홍승표, 2007), 현대인들은 자신의 직업과 존재가치를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노동을 통한 물질적 욕망의 실현이 중심 가치인 근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노동사회는 일생을 노동으로 고단해진 노년기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떠밀거나 소비적 여가에 현혹시킨다. 사회의 주요 담론이 노동과 경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해방이 아닌 추방이 되어버린다. 노동이나 소비를 통해 자존감을 확인하게 하는 근대적 세계관은 노년기를 삶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수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영적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실버취업박람회를 배회하거나 골프장을 전전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적 노동과 여가문화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자아통합을 위한 영적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¹⁰⁾ 노년기 자아통합을 위한 영성의 개발은 근대적 세계관으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영성에 대한 동양사상적 이해: 선도의 천지인 사상 중심¹¹⁾

필자는 서론에서 영성을 “그 자체로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내면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자아완성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 정의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영적 존재로의 자각이란 사람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천지인 사상의 자각이다. 서구문명을 주도해온 과학적 방법은 주로 공간적 분할과 분석의 방법으로 일(一)에서 다(多)를 보지만, 동양 철학자들은 주로 명상과 직관의 방법으로 다(多)에서 일(一)을 보고, 시간의 축에서 생성, 소멸하는 자연을 창조적 생명 원리, 즉 유기체로 파악하였다. 시공간 속에 존재

10) 경쟁적 노동사회의 소비적 여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미경(2008a)을 참조하기 바람.

11) 본장은 김미경(2008b)의 3장을 토대로 새롭게 정리한 것임.

하는 모든 것들 간의 근원적인 분리를 전제한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제안한 “통일체적 세계관”은 시공간을 넘어서 모든 존재간의 근원적인 통일성을 전제한다 (홍승표, 2005).

유, 불, 도 사상은 각각 독특한 관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상세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 (홍승표, 2005). 동양사상 연구자들은 서구의 근대철학이 낳은 기계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을 유, 불, 도와 같은 동양사상의 자연관에서 찾는다 (이현지, 2007; 홍승표, 2005). 물리학자 Capra(1989)는 동양사상과 물리학을 비교하면서 현대물리학에서 일어난 새로운 자연관이 동양의 고대사상 속에 담긴 세계관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부분과 전체를 분리된 독립범주가 아닌 근원적 통일성을 갖는다고 보는 통일체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을 개성의 구현을 통해 전체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이 통일성의 각성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홍승표(2007)는 “노인혁명”에서 의식화 작업을 통해 통일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매일 수행을 통해 자기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승표(2007)가 이해하는 수행 개념은 본고에서 다루는 영성의 개념과 만난다. 즉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수행과정에서 영성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자체로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내면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자아완성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수행문화는 신선도라는 우리의 전통 선도에서부터 존재하였다.¹²⁾ 우리나라의 전통 선도 수행은 고구려 조의선인, 신라 화랑, 백

12) 우리나라에 선도(仙導)를 뜻하는 선교(仙敎) 문화 존재를 처음 말한 근대 역사가는 신채호였다. 그는 1910년 3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동국고대선교고(東國古代仙敎考)에서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선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당 말고 우리에게 종교가 없었다고 믿었던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그에 따르면, 선교는 단군 이래 무려 2000년간이나 계승 발전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로 단군의 가르침이었다. 유불도 이전에 선도문화가 이미 존재했다는 문헌적 근거로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중국 역사만 가르쳤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성리학과 유교문화를 강조하고 불교와 도교

제 대선을 통해 맥이 이어져왔다 (선도문화연구원, 2005). 물론 동양의 수행문화는 도가에서는 도를 통한 무위(無爲)의 세계 그리고 유가에서는 예(禮)로 실현되지만, 그 핵심은 본성을 깨닫고 회복했을 때 존재론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은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을 갈망하며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韓)사상은 이러한 우주만물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우리민족 고유의 경전,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종무종일(一始無始 一終無終一)” 사상, “인중천지인(人中天地一)”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천지가 있고 하나로 조화되어 있다는 뜻이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천지인(天地人)이라는 ‘강재이뇌’(降在爾腦) 사상이다. 천지인은 인간성이 회복되어 깨달은 인간, 즉 하늘사람(天人)을 뜻한다 (이승헌, 1992). 천지인 사상을 회복하기 이전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될 뿐인데, 천지인 사상은 관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수행문화가 만들어질 때 인간의 본성이 복분될 수 있다.¹³⁾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이다. 그저 어디서부터 분류하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땅에는 수없는 하늘이 들어가 있고 땅 속 깊은 곳에도 물은 흐르고 있다. 원자로 되어 있는 땅 속에는 수많은 공간이 존재하며, 전부가 허공임과 동시에 땅이다. 공기 속에는 탄소, 수소 등의 수많은 물질이 들어 있고, 단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물론 현대과학이 이러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학 이전에는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 해도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신념으로 믿었을 뿐이다 (이승헌, 1990).

‘그 자체로 완전한 영적존재’로서 깨닫는 자아완성을 위한 수행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의 최종

그리고 선교를 이단이라고 탄압하였다 (선도문화연구원, 2006).

13) 이와 유사하게 김지하(2001)는 단군을 신인간의 모델, 고조선을 이상적 문명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문명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 인류의 질적 향상, 영적 성숙을 요구하며 “민중이 모두 성인으로, 신인간으로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하, 1999).

목적은 영혼의 완성이다.¹⁴⁾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바로 영성이다. 그러나 분화된 사회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영적 성장의 문제는 대부분 종교 내지는 신비주의 영역에 갇혀버린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간발달과정을 이론화시켰던 Erikson(1963)은 노년기를 인생의 완성기이며, 인생을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돌아보는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였다. 이 지혜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인식에 이르는 수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성개발을 위한 수행으로서 노인복지

통일체적 세계관으로 노인혁명을 제안한 홍승표(2007)는 깨달음이 깊은 노인의 출현에 의해서만 노인혁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노년기에 갑자기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내기부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노년기의 깨달음도 성숙될 수 있다. 따라서 영성의 개발 역시 노년기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을 회고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영적 존재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기를 지원하기 보다는 의식주에 기초한 일상적인 생활과 육신의 건강을 보살피는 잔여적 복지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죽음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부르고 있다 (이승헌, 2008). 첫째, '웨졌다'로 '흙으로 되어졌다'는 의미이다. 둘째, '죽었다'로 통계적으로 언급할 때처럼 감정이 실리지 않는 개념이다. 셋째,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넷째, 옛날에는 왕에게 '봉어하셨다'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죽음에도 차등을 두었지만 죽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선조문화에서는 '천화'라는 말이 있다.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철학대로 살다간 사람을 '천화'했다고 하였다. 즉,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위사람을 위해 홍

14) 우리 고유의 선조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학에서는 수행을 통해 천인이 된 사람의 죽음은 '천화'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승헌, 1990).

노년기와 영성

익하는 삶을 살다간 사람의 죽음에 천화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수행을 했던 우리 민족에게 천화는 죽음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즉, 단순히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다가 영적 진화의 의미가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한 생명이 흥익하는 삶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룬 후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 하늘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와 감정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뇌교육자 이승헌(2008)은 감정은 오감차원에서의 느낌이며 영혼은 거룩한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 “수행을 통한 영적 진화가 이루어질 때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 느낌은 감정이 나오는 오욕을 넘어서 아주 순수한 곳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영혼에 대한 자각은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경심, 외경심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승헌, 2008). 한국의 영성과 종교를 연구한 유동식(1990)은 “한국인의 영성은 종교와 같은 어떤 체계나 형식에 매이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여 민족종교를 조직화하려 하지 않았고 외래 기성종교를 자유로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영성은 제천의식과 풍유도를 통해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유동식, 1990).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의 과제는 잔여적 복지 수준을 넘어서 영적 존재로서 노인들의 영성을 지지할 수 있는 문화복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우리 조상들에게 천화를 위한 영적 진화의 전제가 흥익하는 삶¹⁵⁾이었기에 노년기에는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흥익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도록 수련하고, 지난 삶 속에서 쌓아 온 자원들을 흥익하는데 사용하며, 흥익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문화복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 고 문 헌

15) 필자는 흥익하는 삶 자체를 수행이며, 이 수행과정에서 영성이 개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 김미경 (2005). *지구화시대 여성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일고찰: 성찰적 페미니즘을 위하여*.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미경 (2008a). 경쟁적 노동사회의 소비적 여가의 인간화: 유럽의 ‘좋은 노동’ 논의의 한국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 137-158.
- 김미경 (2008b). *생태, 왜 시대의 화두인가*. 서울: 불교문화연구소.
- 김성건 (2004). *유럽중심주의와 한국의 종교사회학*. 한국사회학회 2004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 김지하 (1999). *사상기행 2*. 서울: 실천문학사.
- 김지하 (2001) *점화군생: 인문학과 생태학*. [인문학과 생태학]. 서울: 백의.
- 박석돈 (200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현황. *사목*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98, 16-25.
- 선도문화연구원 (2006).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충남 천안: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유동식 (1990).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 *사상*, 5, 129-162.
- 유용근 (2006).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실태. *지역사회*, 52, 90-93.
- 이승헌 (1990). *신성을 밝히는 길*. 서울: 한문화.
- 이승헌 (1992). *천지인*. 서울: 한문화.
- 이승헌 (2008). 100세 시대 인생경영과 뇌교육. [100세 시대 두뇌건강과 뇌교육.] 국제뇌교육협회.
- 이원규 (1986). 종교사회학의 발전과정과 연구주제.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331, 99-114.
- 이현지 (2008). *유교연구의 새로운 지평: 근대성을 넘어서*. 동아시아문화포럼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 장덕희 · 이승민 (2007). 가족요인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37, 89-109.
- 전명수 (2004). 신 영성운동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5, 61-87.
- 정둘순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7, 829-845.

- 최금주·제석봉 (2007). 노인의 영성이 자아통합에 미치는 영향. *노인 복지연구*, 38, 109-125.
- 홍승표 (2005). *동양사상과 탈현대*. 서울: 예문서원.
- 홍승표 (2007). *노인혁명*. 서울: 예문서원.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Capra, F. (1989).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Fritjof Capra 저; 김용정·이성범 역). 서울: 범양사.
- Cowgill, D. O., & Holms, L. D.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Kim, M. K. (2000). *Frauenarbeit zwischen Beruf und Familie*. Opladen, German: Leske Budrich.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26-35.

(논문접수일: 2008년 10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11월 18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2월 2일)